성실 • 경건 • 신념

"대진중원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23호 2020년 07월 31일(금)/계간

발행인 · 김두년 | 발행처 · 중원대학교 비서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Campus News
02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제 2대 안성준 이사장 취임
02 최상범 교수, 한국 창업보육협회 충북도 회장 취임
02 임병관 교수팀, 급성 심근염 요인 '콕사키 바이러스' 치료제 발견
02 지역사립대학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02 지하철역 임산부 출산 도운 재학생 '훈훈'
03 개교 11주년 기념행사에서 도약 · 희망 강조
03 '2020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4년 연속 선정
03 통일부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사업' 선정
03 중국 절강월수외국어학원 · 말레이시아 버자야 대학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교류 협약 체결
04 우리 대학, 교수 · 학생 간 '만남의 장' 마련
04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참여
04 승마교육원 개장, 국제 규격 공공 승마장 조성
04 연극영화학과 -(사)충북연극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Social News
05 사회봉사단,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동참
05 연극영화학과, 대구의료원에 '응원의 선물' 전달
0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05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에 감사패 받아

COVID-19 Maneuver News
06 '코로나19' 확산방지 매뉴얼로 대응
06 온라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06 우리 대학, 중국 유학생 입국 적극 대응
06 실험, 실습 등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
06 온라인 강의 '안정화' 를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적극 대응

COVID-19 Communication News
07 '자가격리 해제' 中 유학생들과 간담회
07 '코로나19' 극복 위해 SNS 안부묻기 캠페인 개최
07 김두년 총장, '덕분에 챌린지' 동참
07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부묻기 소통 캠페인
07 김두년 총장, 희망 캠페인 릴레이 동참
07 항공서비스학과, 비대면 학과투어 프로그램 '제1회 너랑 나랑 하랑' 개최

JWU in 人
08 지하철의 천사를 만나다
08 중원대 하늘을 통제하다

Life in JWU
09 '어디로 가야 하는지'
- 중원대학교 사이트 소개
10 새로워진 중원대학교를 소개합니다
11 너랑 나랑 하랑 함께하랑 중원대학교
12 13 연극영화학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연에 대한 열정을 태우다!
- 무관중 공연 'RENT' 후기
14 연극영화학과 6회 졸업영화, 학생들의 발걸음을 영상으로 남기다!

Career
15 6시 내 교양
- 중원대학교의 특이한 교양수업
16 스펙업을 원한다면 컴온!
- 대학생 스펙 쌓는 방법
17 영어가 안되면 중원스쿨
18 19 슬기로운 다전공 생활

Our story
20 알쓸신잡
-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21 STOP! 코로나! 함께 예방해요
- 코로나19 예방법
22 슬기로운 칩거 생활
- 코로나19 다 함께 이겨내요!
23 나 혼자만의 공예
24 너의 색상은?
- 나에게 딱맞는 퍼스널 컬러 알아보기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제 2대 안성준 이사장 취임

우리 대학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회의 이사장 임명절차를 거쳐 지난 3월 17일 교내 영빈관에서 제2대 안성준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안 신임 이사장 뜻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중원대 교직원과 학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내부행사로 소박하게 진행했다.

안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상생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참된 인재를 양성하라는 설립자 뜻을 이어 성실히 운영해 나가겠다"며 "중원의 창학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구성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학교 발전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기관으로서 본질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익법인으로서 법규와 정관을 준수함은 물론 국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준 신임 이사장은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청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안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이사 재임 기간까지다. 〈편집부〉

최상범 교수, 한국 창업보육협회 충북도 회장 취임



창업보육센터장 최상범 교수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장 최상범 교수가 2020년 한국창업보육협회 충북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KOBIA)는 2000년 설립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BI)로 대학, 연구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260개 BI센터에서 2만여 개의 기술창업기업을 보육하고 그 중 70여 개의 상장기업 배출과 현재 전국 6500여개의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충북도는 충북대, 청주대, 교통대, 건국대 등 대학과 기관에서 총 15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최상범 회장은 입주기업 지원과 학생창업 전문가로서 꾸준한 역량 강화 노력으로, 기술거래사 자격 취득 및 '대한민국 창업기업가정신'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지역공동체와 청년공동체 활동 전문가로서도 충북지역에 여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상범 회장은 "앞으로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창업기업을 육성하도록 학생창업 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해 창의력 신장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과 주민창업 및 융·복합 창업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산·학·관 협력을 만들어가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2014년 설립됐으며 올해부터 충북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우수등급 평가를 인증받고 현재 총 19개 호실의 창업공간과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편집부〉

임병관 교수팀, 급성 심근염 요인 '콕사키 바이러스' 치료제 발견



의생명과학과 임병관 교수

우리 대학 의생명과학과 임병관 교수팀은 급성 심근염을 일으키는 '콕사키 바이러스' 치료제를 발견, '분자과학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발표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의 성과는 급성 심근염을 유발하는 콕사키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는 강력한 치료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콕사키 바이러스 감염은 심근염을 유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인 ACE2 단백질 심장세포에서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자들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근염은 심근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싸이토카인 증가와 심근세포 사멸로 심장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콕사키 바이러스는 대표적 심근염 유발 바이러스로,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민감도를 높이는 유사한 증식형태를 가지고 있다.

임 교수는 "콕사키 바이러스 단백질 절단효소에서 찾아낸 특이적인 억제제가 세포와 동물모델에서 모두 강력하게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심장 기능 저하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사람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지역사립대학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지역사립대학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 5일 우리 대학 본관 VIP룸에서 '2020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협의회 회원교 총장 10여명이 참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학들의 고충 ▶대학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대학 운영방안 모색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흥규 사무총장을 초청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관련 준비상황'을 논의하며, 대학의 위기와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두년(총장) 협의회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이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며 지역과 대학의 공동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립대학발전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안들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 세계와 경쟁하고 지역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자치단체와 대학 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 지역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한 회원 대학간의 협력 방안, 지역사립대학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대학 현안이나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역사립대학발전협의회'는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지역사립대학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총장 협의체로 현재 전국의 사립 14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편집부〉



▲회원교 총장을 초청해 정기총회를 가졌다.

지하철역 임산부 출산 도운 재학생 '훈훈'



보건행정학과 19학번 조문성

우리 대학 보건행정학과 재학 중인 조문성 학생(19학번)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임산부 출산에 직접 도움을 준 용기있는 선행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3월 28일 저녁 8시경 용산역 승강장에서 만삭의 20대 임산부가 갑작스런 진통으로 도움이 필요했고, 마침 현장에 있던 조문성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차분하게 산모와 아이 상태를 확인하며 119 신고 후, 산모에게 마사지를 시행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할 뻔한 순간이었지만, 조문성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손길로 소중한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다. 이 같은 선행은 익명의 제보자가 해당 사실을 학교 측으로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조문성 학생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누구라도 도와주셨을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당시 많이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보건학도로서 해부생리학 수업과 교수님들의 경험담 등을 떠올리며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 할 수 있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산모와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료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두년 총장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뻗은 조문성 학생이 너무 대견하고 용기있는 선행에 대해 학교차원의 표창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항상 중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프고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따뜻하게 돌보는 참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관련기사 08면

개교 11주년 기념행사에서 도약·희망 강조



▲개교 기념식에서 김두년 총장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5월 6일 대학 본관 CEO룸에서 '제11주년 개교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내 최소 구성원만 참석하는 행사로 대폭 간소화하여 안성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과 김두년 총장을 비롯한 주요보직자, 교직원, 학생회 임원, 주요 내빈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 및 표창은 교직원들에 대한 10년 근속상 28명, 학생 표창을 비롯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송공패가 수여됐다. 10년 근속상에는 △김정규 학술정보전산원 원장 외 27명, 학생 표창은 △조분성 보건행정학과 학생, 이어 송공패를 △김근수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에게 수여했다.

안성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개교 11주년을 맞아 학교발전에 노력한 교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개교 11주년의 숫자 11은 도약과 희망을 의미하는 만큼 다시금 중원의 창학이념을 되새기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의 가치를 확립하여 우리 시대가 직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두년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먼저 각고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 다양한 분야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중원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만족하는 대학,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2009년 개교해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우수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선정,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등급, 2017년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우수대학 선정, 2018년 세계작업치료사연맹 교육인증 최우수 교육인증기관 선정,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취업률 1위 달성, 2019년 국토부 항공종사자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2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편집부〉

'2020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4년 연속 선정



▲중원대학교 천연잔디 구장에서 축구부가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운동부는 최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주관하는 '2020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KUSF가 지난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학운동부의 육성 지원과 대학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KUSF는 5개 평가 영역, 21개 평가지표, 64개 세부 평가 항목 등으로 구성된 대학운동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사업 신청 대학을 평가한다. 사업 선정에 따라 중원대는 사업비를 지원받고 운동부 운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씨름협회에서도 1500만원의 사업지원금을 받아 씨름부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사용한다.

우리 대학 운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은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 얻은 성과"라며 "우리 대학은 각 종목별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운동부는 씨름, 골프, 축구, 승마, 태권도 등 5개 종목의 스포츠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매년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 지난해 사업지원비 5900만원에서 올해 78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편집부〉

통일부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사업' 선정



▲중원대학교 정문.

우리 대학은 통일부가 주관하는 2020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통일부가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 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하고,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사업 계획 △강의 내용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우리 대학은 이번 선정에 따라 2020년 2학기에 학부 교양과목으로 '통일에 대비한 직업교육의 이해'를 신설해 학생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채로운 주제로 매주 강의하는 방식이 진행되며 통일 관련 특강 및 토론, 프로젝트 수행, 현장학습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 전춘련 책임교수는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총장님과 대학 본부에 감사드린다. 대학생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통일관을 수립해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올바른 인성 교육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북한 전문가이신 문장순 교수님과 함께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통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2017년부터 매년 대학생 통일 토론대회와 통일교육사업, 통일특강을 추진하며 각종 통일관련 사업을 수행해 왔다. 〈편집부〉

중국 절강월수외국어학원 · 말레이시아 버자야 대학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교류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6월 17일 중국 절강월수외국어학원, 말레이시아 버자야 대학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서신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대학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환학생 상호파견 ▶교수 연구 및 학습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화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 절강월수외국어학원은 중국 절강성에 위치한 외국어 교육 중점 4년제 대학으로 14개 단대(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 언어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버자야 대학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한 3년제 직업전문대학으로 비즈니스, 요리, 커뮤니케이션, 호텔 접대, 관광 서비스 관련 실습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번 2개 대학과의 협약으로 인해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인턴십 과정 파견을 통한 활발한 교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정갈월수외국어학원의 입구.



▲ 말레이시아 버자야 대학의 외관.

김두년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활발한 인적교류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대학들과 교류협력 체제를 더욱 확대하여 해외 유학 및 취업 등을 활성화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우리 대학, 교수·학생 간 '만남의 장' 마련



▲경찰행정학과 신입생들이 학과 투어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대학(총장 김두년)은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소규모로 학과별 릴레이 신입생 학과 투어·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1학기 비대면 온라인수업으로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대해 겪고 있는 상실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준비됐다. 학과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교수 및 선후배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학과의 결속력을 다지고 정서적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부의 시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대학본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아래 교내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 행사는 주로 ▶교수·학생 간 소통의 시간 ▶학과소개 ▶학사안내 및 학과별 프로그램 안내 ▶취업 프로그램 안내 ▶캠퍼스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입생은 "코로나 상황으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일상의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없어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태규 연극영화학과 학과장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 비대면 소통은 지속되고 있으나, 학생들 간의 소통 채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교수-학교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결속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은 "1학기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특히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허락해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학과별 행사 현장을 둘러보니 캠퍼스의 활기찬 모습에 더욱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루빨리 모든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참여

우리 대학은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고 7월 20일 밝혔다.

이 사업 중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은 제약 바이오, 정밀 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역 혁신 핵심 사업 육성 방안을 제출해 경남플랫폼, 광주전남 플랫폼과 함께 최종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천연물 분야에 △의생명과학과 △제약공학과 △식품공학과 △임상병리학과 △의료뷰티케어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6개 학과가 참여한다.

또한, 충북대를 비롯한 15개 대학과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총 44개의 지역 혁신기관과 함께 플랫폼을 구성해 교육체계 개편,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사구조개편,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비교과 과정 운영, 혁신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두년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의 기업을 지키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회"라며 "지자체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충북·경남 등 단일형 사업에 국고 각 298억 원과 지방비 각 128억 원이, 광주·전남 등 복수형 사업에는 국고 478억 원과 지방비 2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편집부〉

승마교육원 개장, 국제규격 공공 승마장 조성

(괴산 공공 승마장)



▲김두년 총장 및 외부인사들이 개장식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7월 22일 괴산군 사창리에 위치한 승마교육원(괴산 공공 승마장)에서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차영 괴산군수,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들을 비롯해 이시종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김성식 충청북도 농정국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각 대학 총장, 한화의 김동선 선수, 학생승마협회 서정균 회장, 체로키 승마스쿨 이상목 원장 그리고 승마관계자 및 우리대학 승마교육원 발전을 위해 말을 기증한 국군체육부대장, 우암농장 천규학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7년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지방비 등 20억 원을 들여 괴산읍 사창리 45-2번지 일원 3만여㎡의 터에 실내·외 마장과 원형 마장, 조련장을 갖춘 국제규격 공공 승마장을 조성했다.

공공 승마장 운영을 맡은 우리 대학은 말산업융합학과를 통한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방과 후 유소년 승마 교실, 미취학 어린이 승마 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민간 승마장과 차별화해 재활 승마 프로그램, 성인 승마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승마프로그램도 만들어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와 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두년 총장은 "말산업융합학과를 중심으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접목해 말산업 육성 및 승마 저변 확대와 승마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전국 단위의 승마대회 개최와 체험 및 관람객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사)충북연극협회, 업무협약(MOU)체결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학과장 이태규)와 (사)한국연극협회 충북지회(이하 충북연극협회)는 7월 23일 우리 대학 소극장에서 '공연예술 발전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회문화대학 박용갑 학장과 연극영화학과 이태규 학과장, 충북연극협회 정창석 회장, 천은영 부회장을 비롯한 학과 소속 교수 및 협회 임원 등 2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지역 예술문화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관한 현장 정보 교환 ▶졸업 후 현장 인력 교류 및 예술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 ▶예술문화 활동 및 공동 워크숍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박용갑 학장은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충북지역 공연예술에 있어 지역사회와 협력, 공연예술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예술인 양성과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규 학과장은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 출신 동문들이 이미 충북지역에서 연기, 연출, 제작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며, "다수의 연극제에서 수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석 충북연극협회 회장은 "충북연극협회가 주관하는 많은 예술행사에 이미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와 함께 참여해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무대 경험을 넓히고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성사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교수들과 (사)충북연극협회 대표와의 기념촬영 사진이다.

사회봉사단,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동참



▲우리 대학 교직원들이 헌혈차 안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단장 이지연)은 3월 24일 대학본관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와 헌혈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다. 이번 사랑의 헌혈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헌혈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 버스 내부 및 채혈기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채혈 요원의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 헌혈 참여자에게는 4시간 봉사활동 인정과 함께 헌혈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지연 단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에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여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사회봉사단은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매학기 헌혈 주기에 맞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2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대구의료원에 '응원의 선물' 전달



▲연극영화학과 학생이 구호물품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학과장 이태규)는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에 구호물품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극영화학과 제 9대 학생회 '귀신잡는 학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대구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자발적으로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교수와 학부모가 캠페인에 동참해 모은 성금으로 생리대, 손소독제, 음료·간식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우편으로 따뜻한 손편지와 함께 전달했다.

강다인(학생회 홍보사무국장) 학생은 "대구 의료진들과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우들뿐만 아니라 학과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어 너무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과 구성원들이 이웃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과장 이태규 교수는 "자발적으로 사랑나눔 캠페인을 진행한 학과 학생회 및 학생들이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며 "우리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대구시민과 의료진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연극영화학과는 이번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외에도 매년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편집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우리 대학 방문단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3월 4일 '코로나19' 사태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괴산군 보건소를 찾아 위로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담은 격려품(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김두년 총장, 건강관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10여 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괴산군 보건소의 유기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 및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괴산군 보건소의 교내 임시생활시설 중국 유학생 격리조치 협조와 선별진료 및 방역물품지원 등에 감사를 전했다.

김두년 총장은 "보건소의 협조로 교내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구성원들의 안전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희 괴산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편집부〉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에 감사패 받아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정문찬 이사장이 지난 4월 13일 중원대학교를 찾아 김두년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리 대학 기숙사에서 사용되던 침대 210세트와 화장대 50세트를 전국 농산어촌 유학센터 중 12개소로 기증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어려운 대학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나눔 봉사를 해주신 중원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 농촌 유학센터와 유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아이들이 자연과 시골마을 속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있는 참교육을 실행하는 미래교육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면서 "아동·청소년의 농산어촌유학 사업 분야가 더욱 발전하도록 항상 보탬이 되는 길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농산어촌 유학 전국협의회 농촌유학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교육단체로 현재 전국 26개소에 3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도시 청소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어촌 유학센터에 머물게 하고, 공교육과 농촌체험, 인성교육, 농촌마을공동체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정문찬(왼쪽) 이사장이 김두년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매뉴얼로 대응



우리 대학은 개강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우리 대학은 괴산군과 협력해 중국인 유학생 입국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버스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숙소까지 이송하고, 교내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할 예정이다. 해당인원은 30명이다.

임시 생활시설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일 건강상태 체크와 일일 증상 측정 기록지를 작성할 계획이다.

1인 1실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한 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으면 퇴소한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과 재학생 전수조사, 학위수여식 취소,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개강 2주 연기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문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등도 준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고려해 개강 전까지 방역을 매일 2~3차례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김두년 총장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만반의 비상대응조치를 하고 있다"며 "재학생과 대학 구성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온라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우리 대학은 신입생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학교 홈페이지에 오픈하고 새학기 준비를 돕고 있다고 3월 13일에 밝혔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강 후에도 2주간 학사일정이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돼 신입생에게 대학생활 정보를 안내하려고 마련했다.

온라인에서는 총장 환영사, 연혁, 캠퍼스 소개, 수강신청안내, 장학소개, 학생증 발급안내, 취업·진로, 단과대학 소개 등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안내하고 있다.

김두년 총장은 환영 영상에서 "신입생을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돼 안타깝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학년도 신입생 환영사 영상의 일부.

〈편집부〉

우리 대학, 중국 유학생 입국 적극 대응

우리 대학이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괴산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국 유학생 관리 및 지역과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입국하는 순간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입국 일정에 따라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중국인 유학생 30명이 교내 임시 생활시설에 입실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군과 협력해 전용버스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숙소까지 후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숙사가 아닌 교내 별도로 마련된 중국인 유학생 임시 생활시설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일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이들은 1인 1실을 쓰면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한 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으면 퇴소한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두년 총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대책회의를 거쳐 선제 대응에 나서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확산의 완벽한 대응을 위해 정문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마스크 등을 학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23일 주말 동안 캠퍼스 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개강 전까지 방역을 2~3차례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유학생들이 이용할 임시숙소의 모습.

〈편집부〉

온라인 강의 '안정화'를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적극 대응



▲우리 대학 교수가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비대면 수업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원대 온라인 비대면 강의는 오는 4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개강과 함께 전체 수업 중 70%를 LMS(중원대 e-class)를 이용한 동영상 수업으로, 나머지 30%는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격적인 비대면 수업 도입의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교수들이 비대면 수업진행의 부담이 컸던 가운데 중원대 교수학습지원센터(CTL)는 비대면 수업 콘텐츠 준비 과정에서부터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LMS 및 실시간 화상강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CTL은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는 22일 온라인 특강으로 '진취적 능력 향상 중원인 학습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온라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CTL 센터장 한상훈 교수는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콘텐츠의 다양화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콘텐츠의 질적 수준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 영상 시청, 출결 확인 등 학생들의 수강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화상강의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고,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질 높은 교육콘텐츠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실험, 실습 등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



▲김두년 총장이 본관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에 들어갔다고 5월 13일 밝혔다.

실험·실습·실기가 필수인 과목과 대학원 수업, 수강생이 30명 미만인 강의만 허용했다. 이론과목은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학내 유입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내 방역체계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부의 생활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있다. 사전 방역은 물론 열화상 카메라, 손세정제, 비접촉 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비치했다.

이날 김두년 총장은 학교 본관 입구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발열체크를 하고, 손세정제를 나눠주며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발열 체크는 요일별로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학생들에게 부착한다. 담당교수 등이 스티커 유무를 확인해 발열체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생활관도 출입 시 열화상 체크와 매일 저녁 발열체크를 한다. 식당은 시간을 늘려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테이블은 거리를 두는 등 접촉을 최대한 제한했다. 강의실은 넓게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등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한다. 도서관 등도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학과모임이나 MT 등 단체 활동도 금지했다.

김두년 총장은 "실습 위주의 교과는 대면수업을 허용했다"며 "위생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자가격리 해제’ 中 유학생들과 간담회



▲김두년 총장이 중국 유학생들과 간담회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 대학이 3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격리 해제된 중국인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두년 총장,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해 2주간 불편한 생활을 한 중국인 유학생 13명을 격려 및 준비한 선물을 주며 위로했다.

김두년 총장은 “격리기간 묵묵히 견딘 유학생들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건강에 유의하고 유학생활을 이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중국인 유학생 57명 중 13명이 입국했으며, 이들은 지난 16일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 18명은 현재 입국 대기 상태다.

나머지 미출국자 19명과 교외 자체 자가격리자 7명은 매일 SNS와 전화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외출 자제를 당부하며 예방수칙 등을 전달하고 있다. 〈편집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SNS 안부묻기 캠페인 개최



▲ ‘코로나 STOP!, Hi! 중원’ 캠페인 포스터

우리 대학은 3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코로나19’ 극복과 대학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한 SNS 안부 묻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STOP!, Hi! 중원’이라는 타이틀로 대학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페이스북 댓글 참여 이벤트와 나만의 재미있고 기발한 방식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법’을 공유해 캠페인의 흥미와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한 구성원들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소통과 소속감을 고취 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두년 총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개강 연기, 입학식 취소 등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과 걱정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대면 행사를 더욱 다양화해 ‘신바람 나는 활기찬 대학,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김두년 총장, ‘덕분에 챌린지’ 동참

김두년 총장이 5월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手語) 동작 사진을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국민 참여 운동이다.

이차영 괴산군수의 지목을 받은 김두년 총장은 이날 주요보직자 및 교직원, 학생 등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수어동작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을 취하며 의료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두년 총장은 “지금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구슬땀 흘리시는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교내를 비롯한 지역, 나아가 사회 전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두년 총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이종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지목했다. 〈편집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부묻기 소통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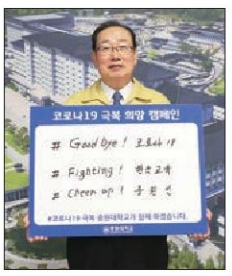


▲이지연 홍보교류실장이 학생들을 응원하는 영상 중 일부분이다.

우리 대학이 지난 4월 1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부묻기 소통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시즌1 재학생 간 소통 캠페인에 이어 시즌2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원하는 교수들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소통하고자 진행됐다.

김두년 총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 검역 강화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불편함 없이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제 간 마음 나누기 소통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중원사랑 소통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관련영상은 중원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집부〉

김두년 총장, 희망 캠페인 릴레이 동참



▲김두년 총장이 희망 캠페인에 참여한 사진이다.

김두년 총장은 5월 1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해 대한민국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캠페인은 SNS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민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게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명대 이용걸 총장의 지목을 받은 김두년 총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직접 쓴 희망 메세지로 ‘#Good bye 코로나19 #Fighting 한국교육 #Cheer up 중원인’을 대학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리고,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유원대 채훈관 총장과 한국교원대 김종우 총장을 지목했다.

김두년 총장은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나라와 국민, 대학 모두가 안정되길 기원한다”며 “우리 대학은 비대면 수업의 질 제고와 청정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 11일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을 허용함에 따라 안전한 캠퍼스환경을 구축하고 바이러스의 학내 유입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교내 방역 체계 매뉴얼’과 정부의 생활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편집부〉

항공서비스학과, 비대면 학과투어 프로그램 ‘제 1회 너랑 나랑 하랑’ 개최



우리 대학 항공서비스학과는 오는 6월 6일까지 승무원을 꿈꾸는 전국 고3, N수생 250명을 선착순 선발해 오는 8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 간격으로 매주 월·수요일에 비대면 학과투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2016년부터 실시해온 중원대학교 투어 프로그램 대안으로 비대면 학과투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항공서비스학과 홍보팀 ‘하랑’이 ZOOM 화상을 통해 학교 및 학과 소개, 면접 이미지메이킹, 면접 이미지코칭, 중원대학교 투어, 모의면접, 선배와의 Q&A 등으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모의면접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해 일대일 피드백을 통해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재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합격 비결과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도 풀어준다.

박찬규 항공 서비스학과장은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전국에 승무원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서비스학과는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으며 우수한 항공사 승무원 양성을 위해 해외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항공사승무원 현장실습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제23호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지하철의 천사를 만나다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면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도와 드릴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는 약간의 거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학생은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용산역 시민영웅 조문성 학생입니다. 조문성 학생의 선행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현준 기자 lhj960918@naver.com

Q 안녕하세요. 언론 장학 기자단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보건행정학과 19학번 조문성입니다.

Q 당시 용산역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서울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용산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면서 어떤 여성분이 계단 난간을 잡고 있고 그 뒤에 남성분이 초조해하고 계시길래 저는 '여성분이 너무 취해서 난간을 붙잡고 계시는가?' 하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뭔가 이상해서 계속 힐끔힐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주저앉으시고 남성분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셔서 바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여성분이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하셨고 남성분은 손에 119에 전화를 건 채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아이가 나왔고, 남편분이 입고 있던 패딩으로 아이를 바로 감싸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119구급대원에게 '여기 용산역 도어 앞에서 이미 출산했다.'라고 말하니 구급대원 분께서 '진통이 아닌 이미 출산이요?' 이렇게 되묻고 제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산모의 나이, 아기의 주수 등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고 구급대원께서 저보고 옆에 있어 달라고 아기 체온 유지와 산모의 안정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한다고 말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산모를 보니 너무 당황하셔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시길래 제가 '지금 구급대원이 오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고 아기가 너무 이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마사지를 하면서 같이 구급대원을 기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오셔서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산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Q 그 순간에 그냥 지나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로 도와 드릴 생각을 하셨나요?

그날 따라서 더 신경이 쓰여서 쳐다보게 되었고, 바로 그 상황에는 주춤할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여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고 산모 남편분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에 바로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Q 현장에서 산모를 도와 드릴 때 긴장하거나 당황하지는 않았나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산모분의 남편과 산모 모두 당황 뿐만이 아니라 위급했던 상황이어서 제가 여기서 긴장하거나 더듬거리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더 침착하려고 일부러 당황 안 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Q 아이를 낳은 산모 가족분들에게 방송에서 선물을 전해주셨다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하철의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 이쁘게 태어난 아기에게 고마움의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통해서 아기가 입었으면 하는 옷을 줬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가장 이쁜 옷을 골라서 그 아기가 입으면 정말 이쁘겠다고 생각하면서 전해드렸어요.

Q 조문성 학생의 선행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다짐이나 결심,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의 사건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만큼 더 많이 공부한다면 이런 분들을 더 도와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뿌듯했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도 뒤에서 묵묵히 도와 드릴 수 있는 멋진 의료인이 되고 싶어요.

Q 조문성 학생의 건강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 얻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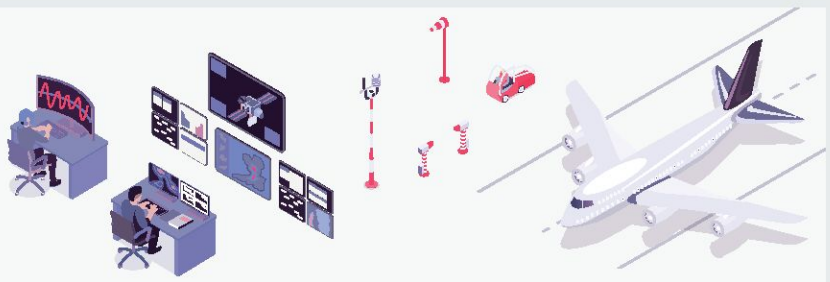
지난 5월 4일 조문성 학생은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프로에서 그날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인 아이의 아버지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사회 분위기 속에 따뜻한 소식이 전해져 네이버 검색 순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조문성 학생은 지난 7월 1일 자랑스러운 괴산 군민으로 선정되어 모범 군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문성 학생 영상

조문성 학생이
출연한 방송 영상 함께 보시죠!~

중원대 하늘을 통제하다

– 항공정비학과 14학번 전광현 학생 인터뷰 –



Q 안녕하세요. 언론 장학 기자단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정비학과 14학번 전광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에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하여 현재 항공 통제 관련 교육을 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Q 면접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나요?

저는 3학년 시절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들어갈 때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방식은 3대3 면접이었고 질문내용은 살아온 배경환경과 지원동기, 저의 목표의식을 물어보며 질문수준은 평이했습니다. 받은 질문 중 독특했던 질문은 이메일 아이디를 물어보고 그렇게 지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Q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현재 공군장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기는 항공 통제입니다. 항공기가 이륙했을 때 조종사와 한팀이 되어서 정찰 및 요격등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항공기에 미션지시 또는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한 교신과 관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취업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격증, 공부, 대외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본인 학과와 연관되어 있는 전공자격증 및 면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와 기관이 기사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본인의 전공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가장 정확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인영어 시험점수 또한 필수입니다. 취업을 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학과공부와 병행이 어렵다면 일년 정도는 휴학을 하더라도 어학점수에 몰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졸업한 뒤에 사회에 나가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너무나 치열하고 늦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학업에 매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하루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상헌 기자 shinsh1004@jwu.ac.kr

어디로 가야 하는지

중원대학교 사이트 소개



중원대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이트가 많다 보니 이 사이트가 저 사이트 같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느 사이트에서 찾아야 하는지 헷갈려 우왕좌왕하는 학우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희 JR이 중원대 웹사이트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김유진기자 djigj486@naver.com

중원대학교 공식사이트 http://www.jwu.ac.kr/



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에는 중원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교 뿐만 아니라 각 전공에 대한 정보와 교육목적을 알 수 있고 학과 홈페이지 방문이 가능하여 학과의 행사 사진이나 일정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 이념, 학교기관 조직 구성, 장학 안내, 캠퍼스 소개, 셔틀버스와 각 부서 전화번호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도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여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https://library.jwu.ac.kr/



도서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전자 자료를 포함해 어떠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현황과 연장,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책을 신청하여 무료로 독서할 수 있습니다. 학과별 논문도 제공하고 있어 참고문헌과 함께 완벽한 레포트를 제출한다면 학점도 관리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취 · 창업지원센터 http://job.jwu.ac.kr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하고 진로에 대한 바른 길을 인도해 졸업 후 취업까지 함께하는 센터입니다. 취업 스킬 강화, 경력 탐색 지원, 취업지원 기반 조성이라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부터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사이트입니다!

FOS비교과 http://fos.jwu.ac.kr



졸업하기 전까지 채워야 하는 비교과 시간!!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막막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통해 비교과 개설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FOS비교과가 졸업 조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넉넉한 1,2학년 때 미리미리 채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중원대 e-class http://eclass.jwu.ac.kr



수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요. 교수님이 녹화한 수업을 e-class 강의실에 올리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를 제출하고 수업의 공지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http://haksa.jwu.ac.kr



통합정보시스템은 학생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조회하면 등록금 관련 정보, 성적 조회, 장학신청, 비교과 신청, 복수&부전공 신청, 기숙사 외박신청&시설보수 신청, 수강내역 조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 신상&주소관리 등이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사이트이니 필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http://bus.jwu.ac.kr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버스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동서울과 청주, 증평 총 3개의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방법은 먼저 잔액을 충전하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선을 선택하고 자리를 정하면 됩니다. 연휴에는 다른 지역 귀가버스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틈틈이 공지를 확인하신다면 편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http://ctl.jwu.ac.kr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워크숍, 특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질 높은 강의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와 첨단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습법을 개발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본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강&기숙사 입사 신청 사이트 https://haksa.jwu.ac.kr



한 학기 생활이 결정되는 사이트!! 바로 수강신청과 기숙사 호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클릭 몇 번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얼마나 공강이 있는지, 어떤 룸메이트와 방을 쓰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서버가 다운될 확률도 있으니 한 개의 창만 띄어놓는 것보다 다른 브라우저도 몇 개 띄워 놓는 센스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상담센터 http://counsel.jwu.ac.kr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치고 힘든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개인/집단 상담과 성고충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온라인 상담과 사이버 신고센터가 운영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고민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학생상담 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학우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3호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새로워진 중원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새로워진 중원대 소개



중원대학교가 2020년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꽃단장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새롭게 바뀐 중원대학교의 모습 궁금하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새로워진 중원대학교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빠밤!

윤지현 기자 apashf01@naver.com

남·여 생활관 구분



여자 생활관을 신축 건물로 따로 분리하였어요~ 남자기숙사는 구 여자기숙사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여자 생활관과 남자 생활관 모두 이전보다 더 적은 인원수로 편하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기숙사 생활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겠죠?

교내 학습환경 개선



교내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남녀 생활관에 열람실과 고시원을 배치하여 편하게 생활관에서 집중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존에 공부를 하려면 본관에 있는 열람실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제는 편하게 생활관 건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겠죠?

교내 가로등 배너 설치



교내에 있는 모든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내 이미지 뿐만 아니라 활기찬 교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적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학생들로 더욱 활기찬 분위기가 되겠죠?

생활관 통합행정실 마련



전에는 행정실을 가려면 3층으로 갔어야 해서 불편하셨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남자생활관(구 여자 생활관) 1층에 통합 행정실을 마련하였어요! 학생들이 편리하게 행정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생활관에 대한 문의는 통합행정실로!

이마트24 입점



이마트24 입점으로 중원대학교 학우분들이 다양한 음식과 편의 물품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필수인 야식거리가 다양해져 기숙사 생활의 행복을 주고 있답니다~

교내 교통안전 강화



교내 곳곳에 방지턱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안전사고 없는 중원대학교에서 신나는 생활하기만 남았죠? ^^

카페테리아 무인 자판기 설치



카페테리아에 무인 자판기를 설치하였어요! 기존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학우분들이 이제는 편하고 빠르게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원스톱 서비스센터 개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본관 1동 4층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개설하였어요! 덕분에 이전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너랑 나랑 하랑 함께하랑 중원대학교





2020년 1학기는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결정되면서 학교 행사들도 함께 즐기지 못하였는데요. 이러한 아쉬움을 기회로 바꾼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부 '하랑'이 비대면 학과 투어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너랑 나랑 하랑' 우리 함께 그때의 현장을 느껴볼까요?

윤지현 기자 apashi01@naver.com



항공서비스학과 홍보부 '하랑'이 제 1회 비대면 학과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월/수요일, 약 2달간 매일 250명을 선착순 선발하여 진행했으며, 코로나의 영향에도 입시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하랑! 그 따듯한 마음씨의 보답이라도 하는 듯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비 21학번 친구들이 행사에 참여해주었어요~ 학교 및 학과소개, 면접 이미지메이킹과 면접 코치, 중원대학교 학교 투어, 모의면접, Q&A 시간을 가지면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선배님들이 직접 면접의 팁을 포함한 합격 비결을 공유하면서 더욱 더 알찬 행사가 되었답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김정원



안녕하세요. 하랑 내에서 19학번 차장을 하고 있으며, SNS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아무래도 학생들이 서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서로 초면인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프로그램 도중 '친해지길 바라'라는 게임을 준비했는데 이 게임의 준비 과정이 즐겁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진행 중에는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고, 질문해주어 모든 시간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Q 미래의 21학번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면접 준비에 있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끝까지 힘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저희 하랑이 응원합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김찬호



안녕하세요. 저는 하랑에서 홈페이지와 카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이번 학과 투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학과투어도 좋았지만, 현재 소수의 입시생들과 비대면 학과투어를 진행하다보니 더욱 피드백도 성실히 해줄 수 있었습니다.

Q 미래의 21학번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비록 군대에 가게 되어 만나 뵙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랑이 응원하겠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이지우



안녕하세요. 저는 하랑 홍보부 내에서 기획부,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여 학과투어를 진행했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진행이 처음이기도 해서 무사히 잘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지만 사전에 철저한 리허설과 준비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별 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미래의 21학번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예비 21학번 친구들!! 현재 한창 입시 준비에 바빠 많이 힘이 드시고 지칠 텐데 별로 남지 않은 기간인 만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합격"이라는 말을 듣는 날까지 저희 하랑이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노어진



안녕하세요. 저는 하랑 홍보부에서 홈페이지와 카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작년에는 학교에서 직접 학과투어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전국 최초로 비대면 학과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저희 하랑들도 서툴고 처음이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입시생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지루해 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 내내 바른 자세와 용모, 심지어 어피어런스까지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랑 나랑 하랑' 프로그램 내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5조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미래의 21학번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모든 예비 21학번 친구들! 지금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날씨가 많이 더워졌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시니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은 입시기간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셔서 꼭 내년에 원하시는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비 21학번 분들! 꿈꾸는 모든 일 저희 하랑이 응원 하겠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정연민



안녕하세요. 저는 하랑 홍보부에서 페이스북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Q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비대면 학과투어는 전국 대학교 중 최초로 비대면으로 학과투어를 진행한 만큼 학과투어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다양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랑 부원들이 여러 번의 리허설을 통해 실제 학과투어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고 더불어 학생들도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이라서 집중력, 참여성이 저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Q 미래의 21학번들에게 하고 싶은 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면접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일이니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금처럼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실 때까지 저와 저희 홍보부 하랑이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합격"이라는 말을 듣는 날까지 저희 하랑이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연극영화학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연에 대한 열정을 태우다!!



무관중 공연 'RENT' 후기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는 지난 7월 3일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무관중 공연인 'RENT'가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 유튜브 채널에 올려졌습니다. 'RENT'는 젊은 예술가들이 불투명한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희망, 우정, 사랑을 다룬 공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힘든 현실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연 영상은 옆의 QR코드로 보시고 이 공연을 준비하며 느꼈던 학생들의 후기를 보면서 학생들의 연극에 대한 "순수한 열정"를 "뜨거운 심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상헌 기자 shinsh1004@jwu.ac.kr



14학번 유소열

특별한 공연은 처음인 거 같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쓰며 했던 거 같다. 우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아주 훌륭한 공연이었다.



16학번 박부재

코로나19로 인해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요즘 저 또한 마찬가지로 무료한 인생을 지내다 보니 게을러지게 되는데, 이번 연극영화학과 3학년 공연 제작 뮤지컬 '렌트'에 참여하므로 인해 조금이나마 무료했던 것들과 게을렀던 저의 모습이 개선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고 노력해서 코로나 19로 만들어진 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텨서 더 좋은 공연으로 우리 연극영화학과가 찾아뵙겠습니다!



17학번 강형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할 것 같던 공연이었던 공연 제작 2의 뮤지컬공연이 불가할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영상으로나마 공연이 올라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술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15학번 김덕수

갈라쇼 등 간단하게만 했던 뮤지컬을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 수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기록을 남기고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는 관객들이 있는 무대에서 생생한 현장감을 전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6학번 김경수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올라가서 너무나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다들 열심히 했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학번 김채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생인 뮤지컬 '렌트' 팀이 공연을 올렸다는 거에 대견하고 고마웠다. 현장에 관객이 없는 상황에서 힘들었을 텐데 좋은 공연을 올린 열정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얼른 관객들과 함께 하는 다음 공연을 올렸으면 좋겠고, '렌트'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발전된 다음 공연들이 더욱 기대된다! 순수한 열정, 뜨거운 심장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파이팅!!



16학번 유도안

교내 공연 중 뮤지컬로 영상 촬영으로 진행되는 점은 처음인 거 같다. 그래서 더욱더 준비하고 신경을 쓰며 했던 거 같다. 코로나 사태로 프로덕션이 제대로 진행이 힘들었었는데 다들 노력하였다. 팀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16학번 김관태

뮤지컬도 그렇고 영상으로 공연을 하게 된 게 처음이라 서툰 것들 뿐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 공연에서의 부족한 점이 다음 공연에서는 강점이 될 수가 있게끔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공연을 할 수가 있음이 불확실했던 상황 속에서도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있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17학번 장유경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일상에 대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결과를 보고 오히려 이번 '렌트'를 시작으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도 얻어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5학번 전병준

연극영화학과에서 뮤지컬을 한다는게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뮤지컬을 영상으로 남기며 해야 할 작업이 많았지만 믿음직한 교수님과 팀원들이 있었기에 잘 끌낼 수 있었습니다.



16학번 김지우

처음 접해본 뮤지컬이었기에 기대보단 두려움이 앞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 끝난 후에는 그동안 했던 공연들과는 다른 의미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갔던 공연이었고 사실 코로나 19로 공연을 올리지 못할 거로 생각했지만 영상으로라도 올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16학번 송정원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되면 되게 하라 라는 마인드를 가지며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무시하고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에 최우선 중점을 두며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좋아 저는 정말 뿌듯하고 우리 학과가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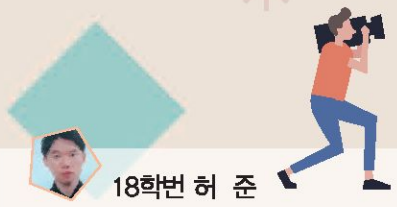
18학번 김 란

처음 올리는 뮤지컬공연이라 많이 긴장되고, 설레며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RENT" 작품이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관객과 함께 즐기면서 공연을 올리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18학번 김미경

학교에서 뮤지컬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꼭 해보고 싶었던 뮤지컬인 "RENT"를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관객 없이 진행되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남길 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순수한 열정, 뜨거운 심장!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화이팅!



18학번 허 준

매번 공연을 올렸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한 공연이어서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날 거 같다. 뮤지컬인 만큼 노래를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다 같이 연습하며 노력하니 결과는 좋았다. 다음에도 뮤지컬공연을 올려보고 싶다!



19학번 김정준

뮤지컬에 대해서 무지하더라도 seasons of love라는 노래는 다들 제목은 몰랐지만 들어본 노래이기에 반가웠다. 무엇보다 모든 출연진이 나와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보고 있는 나도 덩달아 그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노래마다 특성과 스토리를 잘 살려서 그 곡이 가지는 분위기와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았다. 특히 Another day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서로 대립하는 마음을 가사로 녹여낸 노래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눈과 귀가 좋았던 뮤지컬이었다.



19학번 안채현

다 같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 무대에서 서는 것이 많이 두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무대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학번 김서희

저는 촬영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뮤지컬 〈렌트〉가 신입생으로서 처음으로 했던 촬영이었던 만큼 머릿속에 많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촬영하면서 하나의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우와 스텝들 교수님께서 고생하시는지 보았고, 그렇게 모두가 땀을 흘린 결과가 멋진 공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잡았던 카메라가 멋진 뮤지컬 〈렌트〉 공연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18학번 최석진

이런 사태에 공연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뿌듯했다.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놀라울 뿐이다.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하여 잘하고 싶다. 다음 기회도 노려보자. 화이팅!



19학번 고병용

중원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처음으로 뮤지컬공연을 올리는 순간에 함께여서 영광입니다.



19학번 곽민승

저희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는 뮤지컬 라이브 스트리밍에 참지만, 마크라는 배역으로 출연한 19학번 8기 곽민승입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멋진 무대에서 갈라쇼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무대를 만들어서 그룹안의 갈라쇼라는 차이점을 뒀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래만 부르면 됐는데 무대가 들어오니까 뭔가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난이도가 올라간 만큼 퀄리티도 올랐습니다. 영상을 보신다면 확실히 눈은 즐거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19학번 전미송

물론 저는 배우로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스태프로 배우들을 멋지게 빛내주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 모두 다 같이 만들어 가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20학번 김영웅

처음 1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참여한 공연이니만큼 무대 스태프로서 많이 배우고 또 경험하며 멋진무대를 만들 것이라 다짐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공연이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정말 아쉽다. 많이 부족한 저를 도와두시고 알려주신 선배님, 교수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이 공연을 하며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무대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 연출님 배우님들 모두모두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렌트팀 사랑해요!♡♡



18학번 엄세미

처음에 내가 뮤지컬을 한다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았고 걱정도 많이 되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뮤지컬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결국, 마지막에는 설레임과 긴장만 남게 되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뮤지컬을 하고 싶다.



19학번 노은지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올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작업을 할 기회가 이번 학기에 없었습니다. 제가 큰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공연 준비로 바삐 돌아가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연을 준비한 '렌트' 팀에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9학번 홍수민

대학 들어와서 첫 뮤지컬을 3학년 선배님들 프로덕션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웃으면서 잘 알려주시고 많은 스텝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 몰론 코로나 때문에 영상 촬영으로 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선배님들 그리고 같이 팀에 들어간 동기들 후배들이 좀 한결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고 좋았던 프로덕션이였습니다.



19학번 송윤지

이번에 학교에서 뮤지컬공연을 처음 올리게 되었는데 그 무대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공연을 잘 끝낸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번 공연으로 인해 배운 점도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20학번 손은희

이번 뮤지컬 렌트 공연 스태프로 들어가 처음으로 무대 분장법을 배우고 배우님들께 화장해줄 기회를 얻어 가르침과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학교에서 올리는 공연 활동이 큰 의미가 있고,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또 공연들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가르침에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거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9학번 김준영

눈으로만 봤던 뮤지컬 '렌트'를 팀원들과 노래부르며 준비하고 연습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산하여서 실습이 어렵고 공연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을 텐데, 팀원들과 무대 위에서 마스크를 벗고 '렌트'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더 열심히 하고 그만큼 더 뿌듯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비록 공연을 영상이라는 결과물로 남겼지만 저는 '렌트'의 배우로서 그 감동을 실제 공연을 올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고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시 잊고 있었던 공연의 힘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19학번 조재현

렌트라는 공연을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공연이 취소되고 있는 와중에도 최대한 조심하며 공연을 만들어내는 선배님 동기들 후배들이 대단하고 보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20학번 문다은

저에게는 첫 뮤지컬공연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막내라고 너무 잘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한 번쯤 하고싶었던 뮤지컬공연을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제작 기간에 행복하고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감사합니다!



20학번 장재백

이번에 첫 무대에 첫 가창팀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썸네일 디자인을 맡게 되었는데 '렌트' 라는 뮤지컬의 분위기를 한 번에 담으려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감사합니다.

● REC 00:07:20

연극영화학과 6회 졸업영화, 학생들의

발걸음을 영상으로 남기다!



연극영화학과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제6회 졸업영화 '160km, 우리는 졸업동기' 국토 대장정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60km, 우리는 졸업동기' 프로젝트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예비 졸업생들의 졸업영화제의 영화 제작, 영화제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토 종주를 통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향후 온라인 상영 등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졸업생들의 영화 도전정신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참여학생들의 관련 사진 및 후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극영화학과 졸업생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상헌 기자 shinsh1004@jwu.ac.kr

3기 정상현 14학번



이번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제6회 졸업영화〈우리는 졸업 동기다〉 국토종주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다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가기 전 고민이 많을 시점에 생각을 정리하면서 졸업 동기들과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다. 힘든 만큼 서로 믿음이 생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라는 마음 하나로 해낼 수 있을 거 같아서 좋았다.

3기 정현섭 14학번



이번 국토대장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힘들었지만 뭔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몸 상태가 안 좋아져 가장 먼저 낙오하게 되었지만 이런 기회가 인생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졸업 동기들끼리 다 함께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재밌었습니다.

3기 유소열 14학번



'걷는다'라는 건 마냥 도착점을 향해서 걷는 게 아니었다. 저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곳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목적지인 당진에 도착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야 출발점에 선 것이다. 부르튼 발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발로 완주하겠다며 아득바득 걷는 모습들. 교수와 제자라는 벽을 허물고 사소한 얘기에도 깔깔대며 걸었던 날들이 훗날 술자리에서 두고두고 회자 되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꿈을 향해 걷는다.

4기 이정현 15학번



이정현 제 이름 석자를 걸고 강력 추천합니다! 현재 4학년인데, 그 전에 국토대장정을 알았더라면 갔을 것이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가고 싶습니다. 국토대장정을 하고 난 뒤 제 느낀 점은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 싶은 일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몸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는 걸을 수 없지만 함께라서 가능했다는 것을요. 그만큼 조직 안에서의 협동심과 책임감, 공동체 의식이 많이 길러졌고, 정말이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힘들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뜻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많은 학우분께 정말 권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자신감이 없고 실패에 두려움이 있거나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꼭 도전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5기 유도안 16학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졸업 영화 계획과 일정이 미뤄지기 시작하였고, 졸업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던 도중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인 〈우리는 졸업동기〉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준비하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것 같다. 학기 안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계획과 일정 조율과 안건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공동의 졸업 작품이라는 목적 하나로 진행을 하다 보니 개개인이 아닌 단체(소속감)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작업을 했던 것 같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다시 내 자신을 돌아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들 부상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며 지치면 옆에서 이끌어주었던 것 같다.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다.

5기 박부재 16학번



졸업 영화 다큐멘터리 작품인 〈우리는 졸업동기〉를 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 이렇게 걷는 일이 군대 이후로 또 있을 줄 몰랐던 생각에 겁을 먹었고 매우 하기 싫었다. 하지만 이미 기획이 진행된 일이기에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마인드로 참여하였고, 많은 졸업 동기들과 서로 발맞춰 걸었다. 그로 인해 160km라는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졸업 동기들과 더욱더 끈끈한 의리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듯하여 더욱 뜻 깊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었다.

6기 최희진 17학번



평소에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국토대장정'을 쉽게 생각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은 매번 혼란스러웠고 진행하면서 하루에 4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걷는 건 힘든 일이었다. 예상치 못한 부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건 '함께'임에 가능했다. 4년간 함께한 교수님, 동기, 선배들 그 외에 우리를 응원해준 학과 재학생들과 부모님들. 좋은 추억이 생겼고 즐거웠던, 힘들었던 감정들 모두 앞으로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6기 정슬기 17학번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 발에 물집도 잡히고 지치기도 여러 번, 그런 나를 끝까지 완주하게 해준 건 책임감이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함께하는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 나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무겁기도 사실 가볍기도 했다. 놔버리면 쉽게 놓아질 것 같았고 또 잡고 가자니 너무 무겁고 힘이 들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끈을 엮어 하나로 끝까지 나아갔던 것 같다. 그만큼 함께라는 의미에 대해 크게 생각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서로가 없었더라면 책임감 또한 크지 않았을 것이다. 걷는 내내 누군가는 빠른 걸음으로 길을 인도했고 누군가는 밝은 미소로 힘을 북돋웠으며 누군가는 묵묵하게 뒤에서 등을 밀어주었다. 이렇게 서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끝내 완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그때도 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할 만큼 중요한 존재이며,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6기 권혜주 17학번



졸업영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 진행된 〈우리는 졸업동기〉 국토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혼자였으면 많이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것이다. 함께 발맞춰 걷는 것이 위로가 되었고 하나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추억만큼은 깊게 새겨서 나아가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교수님까지 같이 걷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그만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교수님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6기 서유림 17학번



'국토대장정'은 온전히 마주하기도 전부터 날 겁에 질리게 했다..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라고 경험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도전은 두렵다. 그래서 더 힘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대부분 리뷰에 적힌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문장은 내가 경험한 뒤에서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수님과 동기들, 선배들과도 이야기 나누고,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거 같다.

중원대학교의 특이한 교양수업

6시 내 교양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교과 중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교양강의를 선택해서 들을수 있다는 것, 그것이 대학교와 다른 교육기관의 가장 큰 차별점일 겁니다. 우리는 대학 생활 동안 필수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다양한 교양강의를 선택하고 들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우거나 다른 곳에서 듣기 힘든 강의를 듣는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재 중원대학교의 독특한 교양과목들을 운영중인 교수님들에게 교양과목들에 대하여 소개받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영민 기자 redcamplsa@naver.com

생활 호신술 / 박영만 교수님



Q.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예 경호 전공교수 박영만입니다. 경호안전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태권도 6단, 합기도 5단, 특공무술 5단, 해동검도 5단, 유도 1단 등 다수의 무도를 하였습니다. 경호 현장에서는 23년간 실무경험 쌓고 현재는 중원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Q. 강의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수업 방식을 알려주세요.

'생활 호신술' 강의는 범죄 및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현실에 맞는 호신술의 기초적인 호신 능력을 향상하고, 생활 전반에 있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실전적인 호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수업은 각종 무술 및 호신술 관련 무술에 대한 이해 및 호신술의 기초적인 이론과 낙법, 기본 타격 및 발차기를 실전에 쓸 수 있는 응용기술과 함께 기존의 호신술의 방법이 아닌 현실적인 실전 호신술의 응용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 본 강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본 강의의 장점은 기존의 운동을 하였던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이 호신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기 능력을 같이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실기 수업이지만 실기 능력이 차별화되는 과목이 아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한 예로 여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마치면 공중회전 낙법까지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나이프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실기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Q. 강의가 생겨난 배경 및 강의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본 강의는 무예 경호 전공이 경호학과로 신설되었을 때 학과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상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과 범죄 예방적인 면을 이론으로 이해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실전적인 호신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Q.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 또는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생활 호신술' 강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인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의 일반적인 호신술보다는 실전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호신술이나 신체적인 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위기능력의 회피와 범죄 예방 기본이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자 마음 남자 마음 / 조용태 교수님



Q.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및 예술 심리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태 교수입니다.

Q. 강의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의 절반을 각각 차지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보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남자와 여자의 심리와 행동이 왜 다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Q. 수업은 어떤 방식과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나요?

학생 각자의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심리학의 각 영역 즉 정신분석심리학, 발달심리학, 신경생물심리학, 문화심리학, 진화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Q. 강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남자와 여자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차이를 다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장점입니다.

Q. 강의가 생겨난 배경 및 강의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20여 년동안 상담과 심리치료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우리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면서 동성 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Q.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가장 중점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보다 적절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취업과 진로 / 최상범 교수님



Q.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범입니다. 저는 창업보육센터장과 생활관장을 겸직으로 맡고 있으며 전공은 스포츠 교육학입니다. 골프 실기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 취창업 지원센터장 보직을 맡게 되면서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Q. 강의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수업 진행 방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과 진로는 본인의 역량을 탐색해보고 취업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여러가지 스킬과 정보를 알아가는 강의입니다. '취업과 진로' 강의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워크넷을 통해 적성과 심리 검사를 진행하여 역량과 적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방향과 현대산업의 트렌드를 설명합니다. 소멸하고 있는 직업에 관하여 논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는지 알려주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강의의 장점 및 특이점은 무엇인가요?

'취업과 진로'의 장점은 학생들이 본인의 강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본 수업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알아보고 본인의 비전과 목표를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융합과 통합이 중요해지는 4차산업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른 재능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 강의를 통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Q. 강의가 생겨난 배경 및 강의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개설되기 전에 우리 학교는 당시 취업전략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 많이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취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취업 도움 프로그램 외에 수업으로써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취업과 연계되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Q.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는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취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전공이 본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직업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본인들의 구체적 방안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3호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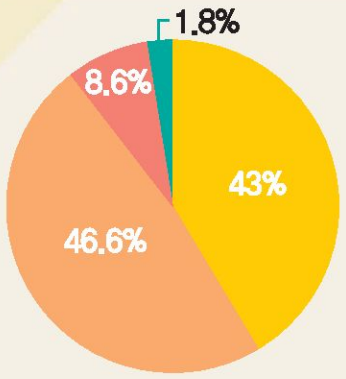
대학생 스펙 쌓는 방법

스펙업을 원한다면? 컴온!

내가 가진 스펙으로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이신가요? 취업 준비를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나의 스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대학생 스펙이 중요한 요즘 JR이 스펙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따라 좀 더 수월하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디 참고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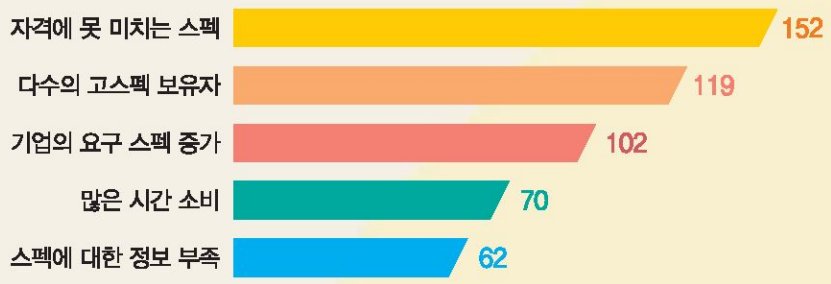
김유진기자 djigj486@naver.com

스펙에 대한 압박감은?



우리 대학의 총 2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펙 압박감 얼마나 받으세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89.6%가 ▲스펙에 대한 압박감을 매우 많이 받는다(43%), ▲어느 정도 받는다(46.6%)로 답했습니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8.6%, 1.8%에 불과했습니다.

스펙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복수응답)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지원 자격에 못 미치는 스펙을 가졌다(152명)거나 ▲고스펙 보유자가 너무 많다(119명),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점점 늘고 있다(102명), ▲스펙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70명), ▲스펙에 대한 정보 부족(62명) 등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스펙에 대한 압박감은?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1. 어학



집에서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어학' 스펙 쌓기를 통해 경쟁력을 길러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어학 스펙으로는 '토익'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또는 국제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이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영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전 연습을 하며 감을 익혀야 해요. 또 다른 어학 스펙으로는 '토익 스피킹'이 있습니다.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으로 최근 많은 기업에서 이 점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OPIC', 'HSK', 'JLPT' 등이 있으니 틈틈이 어학 스펙을 쌓아보세요. 기업마다 서류 커트라인이나 자격증별 가점을 주는 곳이 다양해요. 본인이 지원하려는 기업, 직무별 어학 점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모전



지금 준비해야 할 대학생 스펙은 바로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은 대학생 때만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봐도 좋아요. 자신이 관심 있는 전공, 직무에 대해 공모전 수상 경험이 있을 때, 취업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요. 단순히 공모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업, 직무 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상금 또한 두둑해서 용돈 및 등록금을 일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수상을 위한 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래에 일하고 싶은 직종에 맞춰 나가야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이 아닌 팀으로 출전할 경우 다른 학교, 다른 전공의 학생과 팀을 꾸려 진행해 보세요. 훨씬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상할 수 있어서 수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교적 시간이 많은 이 시즌! 공모전을 통해 알차게 보내세요.

3.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스펙에 큰 비중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과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봉사활동을 의미 있는 대외활동으로 만들고 싶다면 단기보다는 장기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또한 자신이 해외에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봉사활동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그 국가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또한 닥쳐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스펙에 플러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추천드려요. 나의 시간이 더 가득 차고, 여유가 생기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4. 단기인턴



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이나 방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외활동입니다. 중원대학교에서도 국내 인턴 뿐만 아니라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인턴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하게 해주는 활동이며, 짧지만 현장에서 실무자로 근무할 때 도움이 되는 경험이며 잘하면 취업과 연결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희망 직무와 관련 없는 인턴이라도 공통역량인 커뮤니케이션, 조직 적응력, 팀워크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으므로 꼭 희망 직무가 아니더라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 시사 공부



요즘 면접에서 시사 상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틈틈이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시사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상 머리로만 생각할 때와 입으로 말할 때는 또 다릅니다. 평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꼭 면접과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기업의 최신 뉴스도 함께 살펴보면 자기소개서 쓰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원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자격증 프로그램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자격증 등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50% 할인 혜택도 있으니 공지가 뜬다면 바로 신청하여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격증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방학에는 자격증 무료 수강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 관리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 회원가입 시 쿠폰 코드란에 "중원up" 을 기재한다면 무료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와인 소믈리에, 아동 미술 지도사, 바리스타, 가족심리상담사, 미술심리 상담지도사, 스피치 지도사, 방과 후 지도사, 스토리텔링 그림책 지도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어가 안되면~

중원스쿨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 하지만 잘하기 쉽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영어인데요. 취업시장에서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자격요건으로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영어자격증을 중점적으로 보기도 하며 요즘은 면접과정 중 영어면접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변별력을 갖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영어!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영어관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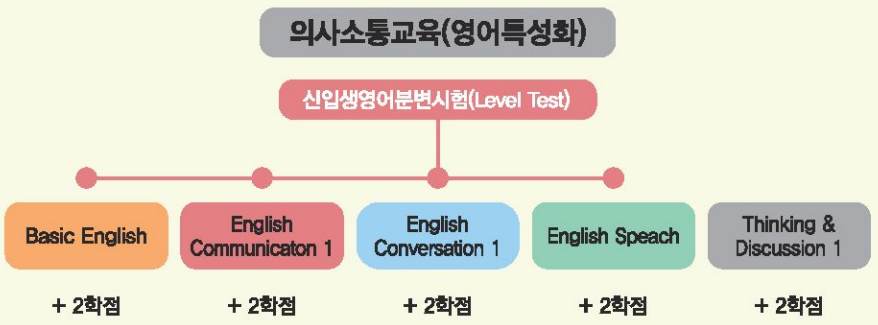
최영민 기자 redcamplsa@naver.com

교양필수영어 PECC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선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통해 모의 토익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양필수영어(총 5단계) 수업에 배정을 하여 본인의 레벨에 맞는 맞춤형 영어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수준에 맞는 단계에서 영어 수업을 시작하여 최초 배정단계를 포함하여 2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영어 필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영어인증제도

우리 대학의 영어인증제도는 흔히 'SEN Test'라고 부르는데, 이는 졸업 전 영어 인터뷰 시험을 말합니다. 우선 SEN Test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영어 필수 학점을 취득해야합니다. SEN Test는 개별 학생들이 원어민 교수님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1대1 영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하며 과제 완성도(Task Completion), 문법적 정확도(Grammatical Accuracy), 유창성(Fluency), 발음(Pronunciation), 대화 구성(Discourse Organizaiotn)의 5개 영역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중원대학교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고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취창업지원센터의 영어지원

취창업 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영어자격증을 포함한 공인 또는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어 자격증을 취득할 때 부담을 줄여줍니다.

취업능력UP 프로그램	취업스펙UP 프로그램
– 취업 관련 교육 및 연수, 면접 비용 지원 – 취업 준비 관련 교육에 한하여 지원 – 어학 학원 등록비(온/오프라인 수강 비용) 지원 (수강 이수율 80% 이상 조건) –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 국가기술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모두 지원 가능 – 공인어학시험(TOEIC/TOEFL/TEPS, JPT, JPLT, HSK, HSKK) 성적 환산기준표 기준점수 이상 시 지원 –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원방법

매 학년초(3월)에 취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표를 취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기재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양선택영어

교양선택영어는 교양필수영어와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영문법이나 회화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영어 특성화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양선택영어 예시

기초토익 I	교선	기초	의사소통	3/3/0	40명
기초토익 II	교선			3/3/0	40명
중급토익	교선			3/3/0	40명
미디어영역	교선			2/2/0	40명

FOS 비교과 영어수업

비교과 과정에서 선택하는 과목중 LMS 또는 비교과 대면강의로 영어를 배울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수업에서는 영어와 다양한 활동을 접목하여 학생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접하고 더 다양한 파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언어교양학부 비교과 수업(Extracurricular Program)

회 화	생활영어회화1, 생활영어회화2, 여행영어회화1, 여행영어회화2 타엠투특(토론)1, 타엠투특(토론)2
독 해	영어읽기1, 영어읽기2
미디어 영어	영자 신문, 영화 영어, 유튜브 영어, 팝송 영어, 애니메이션 영어
비지니스 영어	영어 인터뷰1,영어 인터뷰2, 영어자기소개서작성1 영어자기소개서작성2, 영어서식의 기초1, 영어서식의 기초2
TOEIC	On-line Course

영어능력 향상법

이 밖에도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English only zone과 Writing Center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활용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YBM과의 협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모의 토익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 카페 등을 운영하여 상황에 맞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터득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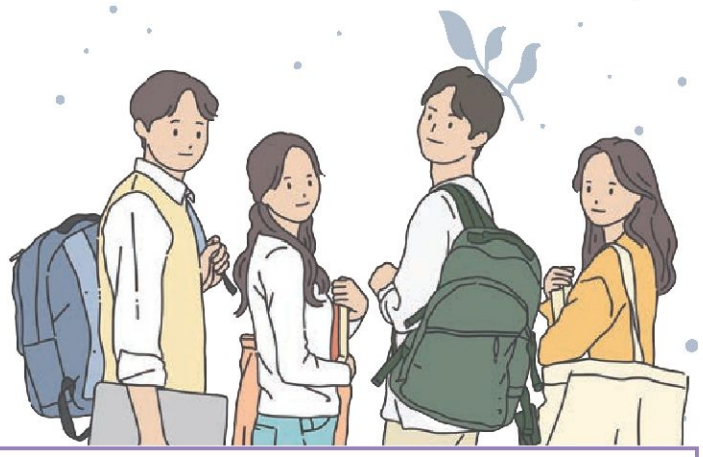
이 글을 마무리하며



▲잉글리쉬 카페 전경.

우리 대학에서는 말하기 중심의 영어 교과 과정에 충실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평소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향후 세계무대에서 우리 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자신의 외국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쉬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졸업하여 사회에 발을 내디딜 즈음에 여러분도 모르게 영어실력이 향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어학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도 여러분을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전공생활+



여러분 학교생활을 슬기롭게 하고 싶은신가요? 지금 이 기사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슬기롭게 해줄 수 있는 중원대학교만의 다전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상헌 기자 shinsh1004@jwu.ac.kr

1 다전공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등 학생 모집인원이 적용되는 전공이 아닌 교육과정만 운영되는 전공

복수전공

주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병행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복수전공할 전공을 33~36점이상 수강해야 한다.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는 제외)

부전공

주전공 이외에 타 전공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주전공 학위증명서에 주전공과 더불어 부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수여하는 제도

연계전공

연관성이 있는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공이 연계를 통해 새로운 전공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제도

융합전공

기존 전공 계열 연계 없이, 학과(전공) 단과대학의 경계 없이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공 교육과정 융합을 통해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제도

학생설계전공

학생이 소속 학과 및 전공과 관계없이 사회적 수요, 진로,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조합, 스스로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수하는 학생 중심 전공으로 학생주도 융복합 교육을 구현하는 제도

2 연계 전공의 종류

범죄심리전공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는 국내 유일한 학사과정으로서 날로 흉포화, 조직화,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죄심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한 전공

스마트그리드안전공학전공

기존의 에너지 전력 공급망을 지능화/고도화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성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학적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설계한 전공

3 융합 전공의 종류

드론 운용 전공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및 실무 및 산업현장에서 바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한 전공

문화 콘텐츠전공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의 제작, 기획, 예술산업 분야의 응용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계한 전공

3D 프린트 전공

3D 프린트의 활용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실무 및 산업현장에서 바로 3D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계한 전공

빅데이터 분석과 관리 전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해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한 전공

항공 보안 서비스전공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항공 보안 서비스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한 전공

4 슬기로운 생활을 한 사람들 (다전공 체험담)

박완수 학생 (융합디자인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복수전공)

1 복수 전공을 왜 하게 되었는지?

2개의 전공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2 복수 전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우선 좋은 점은 남들보다 힘들지만 힘든 만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3 앞으로의 꿈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프로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프로감독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4 복수 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2개를 병행한다고 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적응하고 즐기다 보면 본인한테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똑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시현 학생 (식품공학과, 아동 보육 상담학과 부전공)

1 부전공을 왜 하게 되었는지?

부전공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동 보육 상담학과 수업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에게 설명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부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부전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부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많은 학우를 만나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같아서 뿌듯합니다.

3 앞으로의 꿈은?

저는 식품회사에 취직하여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을 제 두 눈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4 부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후배들이 벌써부터 부전공을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배우고 노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한 사람들 (다전공 체험담)

이건주 학생 (항공 재료공학과, 3D 프린트 융합전공)

1 연계전공(3D 프린트 전공)을 왜 하게 되었는지?

3D 프린트 전공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다 책의 내용은 인공지능 위주였지만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3D 프린트도 아직 지금 대중화 되고 있지 않은 점에 흥미가 생겨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연계전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자신의 전공 과목과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3 앞으로의 꿈은?

무엇에도 대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4 연계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수업에 마음을 열고 들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고 기존 전공과목에 도움이 되거나 새로운 발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 학생 (항공 재료공학과, 범죄심리 연계전공)

1 연계전공(범죄심리 전공)을 왜 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학점 채울 과목을 찾다가 맞는 시간, 학점 위 과목들이 연계전공 쪽에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심리 관련 과목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약간의 흥미가 있어 듣게 되었습니다

2 연계전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교양 학점이나 전공 필수학점을 채운 사람들로서는 본인의 흥미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의 꿈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직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4 연계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학교에 다니며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김한얼 학생 (경찰행정학과, 범죄심리 연계전공)

1 연계전공(범죄심리 전공)을 왜 하게 되었는지?

원래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도 피해자 상담사 경력직을 많이 뽑고 있어서 가능하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범죄심리분석관으로서의 길도 걷고 싶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전공은 특정 직업군이 아니면 살리기 힘든 쪽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진로가 조금 바뀌더라도 위험 부담이 덜 하도록 현재 쓰임이 많이 되는 심리학 관련 직업을 가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2 연계전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우선 졸업 시 학위가 2개 나옵니다. 연계전공은 단순히 학위만 따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취업 준비 등 좀 더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범죄심리학과의 경우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졸업요건인데, 이 요건을 준비하면서 얻게 되는 자격과 여러 체험들이 졸업하더라도 앞으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경찰행정학과-범죄심리 연계전공을 택한 쪽이 복수 전공을 선택했을 때보다 시간이 훨씬 덜 들고 지식을 습득하기가 좋았습니다. 가끔 겹치는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 과목들과 주전공-연계전공 간 9학점 중복학점의 추가 인정으로 다전공 임에도 수업 부담이 적었었고, 수업 진행방식도 제 마음에 들어 연계전공을 택하고 나서 많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택했던 전공은 너무 좋은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흥미 등 적성이 안 맞아 복잡하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전과보다는 의외로 연계전공 과목에서 재미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앞으로의 꿈은?

저는 현재 요건충족의 하나로 피해자 상담사 자격취득 과정 중에 있는데, 자격증 취득 후 상담경력과 여러 경험을 쌓아 나중에 어디에 가서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4 연계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연계전공도 주전공처럼 졸업요건이 있어서 졸업 후 취업할 부분을 미리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졸업요건을 가진 연계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마다 졸업요건이 다르고 일부 졸업요건은 저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미리 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대학 생활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홍준 학생 (법무법학과, 범죄심리 연계전공)

1 연계전공(범죄심리 전공)을 왜 하게 되었는지?

범죄심리 전공은 다른 수업을 찾다가 예전부터 심리계열에 관심이 있어서 했습니다.

2 연계전공을 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부전공보다는 자유롭게 듣고 싶었던 전공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의 꿈은?

저는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연계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관심이 있는 수업이나 전공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고 싶지만, 그저 학점을 생각하고 간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23호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알쓸신잡'S -사소함편-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안녕하세요. JR 언론기자단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거나 궁금했지만 대수롭게 여겼던적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 물어보기는 부끄럽고 호기심 가득했던 질문! 오늘 한번 파해쳐 보겠습니다. 임현준 기자 lhj960918@naver.com,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ko/

Q 날벌레 떼는 왜 모여서 날고 있을까?

A 가끔 길을 걷다 보면 날벌레들이 허공에 모여서 귀찮게 하는 일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간혹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라면 아찔합니다. 날벌레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날벌레들은 모여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접하는 날벌레는 깔따구입니다. 깔따구는 모기보다 작은 존재들인데요. 깔따구가 모여있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식하기 위함입니다. 암컷 깔따구가 허공에서 특정 유인 물질을 분비하면 그 주변으로 수컷 깔따구가 모여들어 번식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포식자가 나타났을 경우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며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날벌레들은 왜 우리를 따라올까요? 그 이유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동물은 다른 성별 대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고점에 위치하려고 한답니다. 주변에 사람이 이동할 때 머리 부분이 특정 고점 지형이 되므로 머리 주변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한쪽팔을 들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주면 날벌레 떼를 유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왜 기차와 시내버스에 안전 벨트가 없을까?

A 안전 벨트는 추락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신체의 각 부분으로 분산시켜 부상을 막고 안전을 도모하는 벨트입니다. 안전 벨트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일정속력 이상의 운송수단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와 시내버스에서는 안전 벨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기차를 보면 정해진 길로 다니기 때문에 안전 벨트가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기차에서는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가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차의 무게가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많이 무겁기 때문에 기차에 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를 하게 되면 빠른 대피와 구조에 방해가 되어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기차의 경우 급발진과 급정거가 없어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정거장마다 간격이 짧아 빠른 속도를 낼수 없고 입석 승객의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대책인 버스를 대폭 늘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효율적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Q 영화 개봉날짜의 비밀!

A 여러분은 영화를 어디서 보시나요? 사운드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영화관에서 영화 개봉은 무슨 요일에 할까요? 보통 영화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개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최근 영화들은 거의 모두 수요일과 목요일인데요. 이 날짜의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화 개봉의 날짜는 규정이 아닌 관례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보통 토요일에 영화를 개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금요일에 영화를 개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는 편법으로 누적 관객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누적 관객 수가 크게 차이가 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건 배급사들이 스크린 갯수를 늘리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영화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내줄 영화를 상영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개봉 첫주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스크린수가 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배급사들은 영화를 하루 더 일찍 개봉하여 성적을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개봉을 한다면 더 많은 관객수를 유치할 수 있겠지만 많지 않은 평일 관객수로 저조하다는 입소문이 나게 되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급사는 너무 이르지도 않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개봉을 하는 전략을 내새운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메인

Q 미세먼지와의 전쟁, 창문을 열어야 하나.. 닫아야 하나

A 봄만 되면 미세먼지로 인하여 뿌연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입자가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미세먼지들이 너무 작아서 몸속으로 들어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초미세먼지는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많을 때 우리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할까요? 환기는 공기 환경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의 공기를 도입하여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이 환기 자체는 외부보다 공기가 나쁠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 나쁠까요?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은 36mg/m^3 이상부터 75mg/m^3까지 나쁨, 그 이상은 매우 나쁨입니다. 사실은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존재합니다. 실내의 농도는 평균 40mg/m^3 으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실내에서 음식 조리,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가 나빠질 경우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환기를 할 때 길지 않은 시간(3~5분)이 좋고 맑은날에 30분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보통일 때 역시 미세먼지가 없던 시절처럼 맑은 날씨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금은 학교 전략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중원대학교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기부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 참여 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국민 615801-04-211393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71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 문의처 | 전화 (043)830-8071 (중원대학교 비서홍보팀) / 팩스 (043)830-8079

STOP! 코로나! 함께 예방해요

코로나19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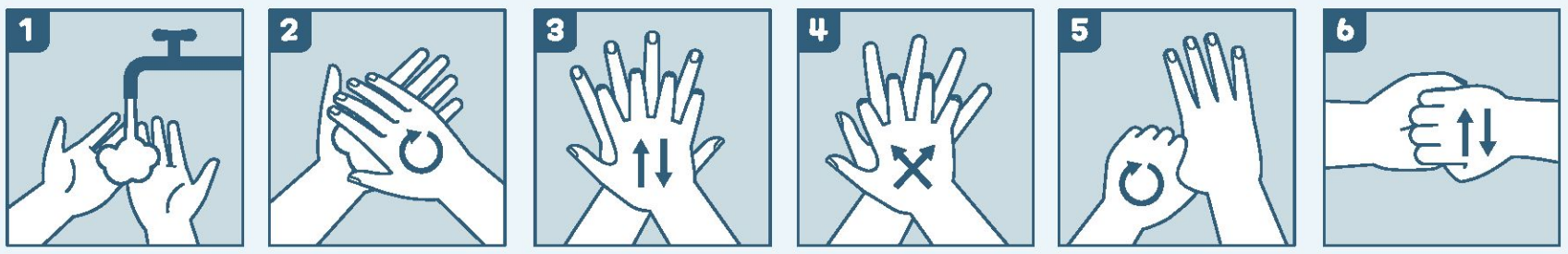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중원대학교에서는 출입 전 체온 측정과 정기적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원대학교 학우분들은 어떻게 코로나19를 예방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예방법 다 함께 살펴보고 우리 다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요! ^^

윤지현 기자 apasht01@naver.com

너만 몰라! 올바른 손씻기 방법

30초 이상!

손만 잘 씻어도 질병 예방을 90퍼센트 이상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손을 자주, 올바르게 씻으면 예방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손씻기 6단계 함께 보러 가시죠!



1.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줍니다.
2.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3.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4.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5.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6.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이 해줍니다.

아직도 몰라? 올바른 기침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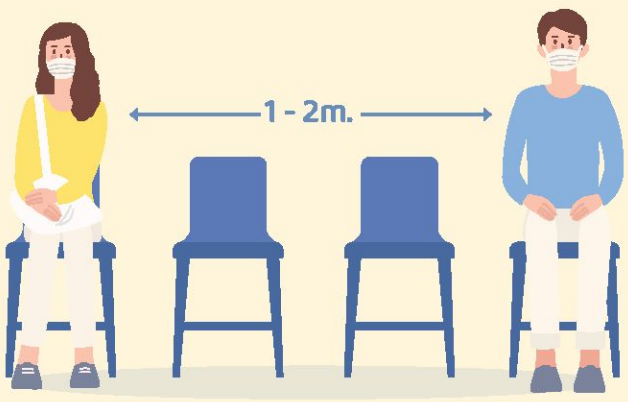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해 감염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입과 코를 막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것은 NO!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기침 예절을 알아야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코와 입을 막고 기침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1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에는 옷소매로 가려주세요.



2 기침 후, 비누로 손을 꼭 씻어주세요.



알려줄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착용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꽤 되죠. KF94처럼 전문 마스크를 권고하지만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덴탈마스크도 OK! 중요한 건 꼭꼭 눌러 써야한다는 점과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는 행위는 NO!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두 함께 마스크 착용! 기억해 주세요^^



슬기로운 집개생활+

코로나 19, 다함께 이겨내요!



점차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만, 중원대학교에서는 학우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자 한 학기 비대면 강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우분들께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감염병으로 인해 집에서만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칩거 생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간호학과 19학번 신시윤



안녕하세요, 요즘 컬러링북을 한 장 한 장 완성하며 매일 힐링하고 있는 간호학과 19학번 신시윤입니다. 사실 컬러링북을 생각하면 오래 걸리면서 어렵고 지루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컬러링북을 도전할 때 색칠하기 쉽도록 손바닥 크기의 작은 컬러링북을 구매했어요. 아, 요즘은 컬러링북과 색연필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새로운 취미 생활로 도전하기에 부담이 없답니다! 그리고 컬러링북을 색칠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그날의 마음 상태가 그림에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기분이 울적할 때는 어두운 색상을, 기분이 좋을 때는 밝은 색상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한 장을 완성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정말 최고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완성하면 다음에는 수채화로 진행해볼 생각이에요. 저처럼 집에서 힐링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간호학과 19학번 이연우



반가워요~ 저는 지난 학기 동안 홈베이킹을 통해 요리 똥손에서 금손으로 변신한 간호학과 19학번 이연우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취를 하고 있어서 베이킹 도구가 거의 없는데도 금손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처음에 도전했던 요리는 '스콘 만들기'였어요. 스콘은 밀가루와 베이킹소다, 버터와 설탕, 그리고 우유를 넣어 잘 섞은 후 반죽을 나누어 달걀노른자를 펴 발라 오븐에 굽는 방법으로 만드는 영국식 퀵브레드(quick bread)에요. 여기서 꿀팁! 저는 집에 오븐이 없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했는데, 정말 퀄리티 높게 잘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오븐 대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 종이컵으로 계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팁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도구가 없다는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스콘을 계기로 다양한 음식에 도전하면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 과정이 너무 즐거워 여전히 홈베이킹을 즐겨 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굉장히 보람차고요! 다음 목표는 케이크 만들기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래요?



스포츠산업학과 19학번 박대륜



안녕하십니까, 동심에 세계로 돌아가 식물을 키우고 있는 스포츠산업학과 19학번 박대륜입니다. 초등학교 때 식물을 키우며 성장일기를 적는 방학 숙제, 다들 해보셨죠?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 요즘 파와 상추를 키우고 있어요. 식물은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햇빛 쐬는 것 말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칙칙했던 집안에 파릇파릇하게 생기가 돋게 하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기분이 들면서 우울하고 고립된 기분을 자주 느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초록색을 자주 보니 정말 마음이 나아지더라고요. 게다가 파와 상추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기분도 뿌듯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할머니께서 뻣뻣한 채소 먹는 것을 힘들어하시는데, 채소가 뻣뻣해지기 전에 재배해서 할머니가 편하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뿌듯해요. 제 친구들은 콩나물이나 방울토마토를 키우기도 해요. 시중에 만들기 키트도 판매한다고 하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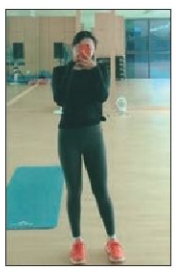
항공정비학과 19학번 최대희



반갑습니다. 달고나 커피 만들기 덕분에 알통을 얻게 된 항공정비학과 19학번 최대희입니다. 정말 대유행이었던 달고나 커피 만들기, 다들 해보셨나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커피와 설탕, 그리고 따뜻한 물을 1:1:1 비율로 넣고 400번을 저어서 만든다고 알려졌지만, 정말 4000번 이상 저어야 완성할 수 있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숟가락보다는 포크, 포크보다는 거품기가 더 잘되는 거 같아요. 계속 섞다 보면 생크림 같은 꾸덕꾸덕한 질감에 아주 예쁜 황금색이 되는데요, 그때 차가운 우유 위에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맛은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데, 힘들게 만든 것 치고는 그냥 커피 우유 맛이라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투명한 컵에 담긴 모습이 너무 예쁘고, 집에만 있어 찌뿌둥했던 어깨를 열심히 풀어준 기분이 들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집에서 카페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음료가 마시고 싶다면,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보세요!



간호학과 19학번 오은진



안녕하세요, 요즘 홈트의 매력에 푹 빠진 간호학과 19학번 오은진이라고 해요. 저는 운동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다니던 헬스장이 한동안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홈 트레이닝을 해보고자 장롱에 숨어있던 요가 매트를 꺼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기구도 많고 가끔 트레이너분께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집에서는 한정된 기구로 혼자 운동해야 하니까,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가 힘들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동영상 사이트에 '홈트'라고 검색하기만 하면 정말 많은 운동 전문가가 신체 부위 별로 시간과 세트를 정해 올려주는 질 좋은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운동하면 금방 포기해버릴 것 같아서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매일 매일의 식단과 운동 방법, 그리고 시간을 기록해 인증하는 방법으로 의지를 다졌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들 포기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의 공예



슬기로운 방학생활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심심해하며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재미있는 우드카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 경수진씨의 취미인 우드카빙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임현준 기자 lhj960918@naver.com

우드카빙이란? (woodcarving:목각, 목각장식품)

어릴적 학교 다닐 때 연필을 깎는 것을 재밌다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이 연필을 깎을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취미가 우드카빙인데요.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나 원목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추천하는 취미입니다. 오래동안 보아도 질리지 않는 나만의 아이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재는 크게 소프트 우드와 하드 우드로 나뉩니다. 소프트 우드는 무른 성질, 하드 우드는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 우드(소나무, 레드파인, 편백나무, 삼나무)는 침엽수 중심으로 부드럽고 무르며 성장 속도가 빨라 생산량이 많습니다. 강도가 낮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저가형 가구나 건축 인테리어 자재에 사용됩니다. 부드럽고 무른 성질로 인해 연습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반면 하드 우드(은행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벚나무)는 넓은 잎의 활엽수 중심으로 강도가 높고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고가가 많습니다. 단단하며 화려한 무늬 때문에 고급 원목 가구에 사용됩니다.

우드카빙에는 짙은 갈색의 색감과 무늬가 화려한 호두나무, 그리고 상대적으로 붉은 색감을 띄는 무늬가 일정한 벚나무(체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로 연습하고 작업하며 내 취향에 딱 맞는 나무하나 찾아보세요~

우드카빙 만들기

우드카빙은 나이프라는 도구로 나무를 깎으며 자신만의 장식품을 만드는 취미입니다. 우드카빙의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숟가락, 젓가락 세트를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장식품보다 만들기 쉽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이프를 만질때에는 장갑을 끼고 깎을 나무를 잘 고정해 놓고 손이 칼날 앞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면 안전합니다. 안전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나무를 들고 만들고 싶은 장식품을 나이프로 깎아내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장식품을 만들고 나면 매끄럽게 사포질도 해준 뒤! 오일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목은 오일로 마감을 해주어야 빛깔이 진해지고 나무의 결이 아름답게 드러나면서 광택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오일로 코팅을 해주어야 내구성이 강화되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프



1 원목:우드블랭크



2 사포질한 후



3 오일바른 후



4 식기세트

우드카빙의 재미를 느끼신 분들은 식기세트부터 버터나이프, 포크, 도마, 캔들홀더까지 그 한계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시작해보기 부담스럽다고요? 요즘은 우드카빙에 대해 검색을 하시면 우드블랭크부터 나이프, 오일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편하게 구매하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 두려운 방학에는 방콕하며 방구석 힐링을 즐겨보는건 어떨까요?



캔들홀더



버터나이프



접시

나에게 딱 맞는 퍼스널 컬러 알아보기

너의 색상은?

Personal Color

'퍼스널컬러(personal color)'란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과 분위기가 더욱 돋보이게 하는 고유한 컬러를 말합니다. 자신의 퍼스널컬러와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해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생기가 돌고 화사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 조화롭지 않아 보이고 밋밋해 보인답니다. 그렇다면 퍼스널컬러는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줄 컨설턴트 변다원입니다. 퍼스널컬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진단받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전문 업체를 찾아가 많은 비용을 들여 진단받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가진단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퍼스널컬러는 전체적으로는 웜톤(warm tone)과 쿨톤(cool tone)으로, 세부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웜톤(warm tone)과 쿨톤(cool tone)을 분류해볼까요?

1 직접 비교해보기

손바닥이 그려진 부분에 손을 올려보세요! 어떤 색상이 더 화사하게 보이나요? 손이 더 화사해 보이는 쪽이 자신의 톤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아마 피부톤이 푸르고 하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오셨던 분들은 쿨톤으로, 노랗고 어두운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오셨던 분들은 웜톤으로 나왔을 거라는 예상이 드네요!



2 손목의 혈관으로 분류해보기

1번의 방법으로 구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손목의 혈관을 확인해보세요. 혈관이 푸른색에 가깝게 보이면 쿨톤으로, 초록색에 가깝게 보이면 웜톤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3 눈동자로 구별해보기

사람마다 눈동자의 색상이 모두 다른 건 알고 있으시죠?! 눈동자를 중심으로 테두리를 보았을 때, 회색이나 푸른색이라면 쿨톤, 갈색이나 검은색이라면 웜톤입니다.

4 손목의 혈관으로 분류해보기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긴가민가하신가요? 그렇다면 평소 자신의 느낌을 따라 가보면 된답니다.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실 때 주로 실버(silver) 색상이 어울린다면 쿨톤, 골드(gold) 색상이 어울린다면 웜톤! 그렇다면 이번엔 계절로 나눠볼까요? 보통 웜톤(warm tone)은 봄과 가을, 쿨톤(cool tone)은 여름과 겨울이라고 한답니다. 이 방법도 손바닥이 그려진 부분에 손을 올려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피부가 더욱 돋보이는 방향이 자신의 계절이랍니다!

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눈동자와 머리카락 색상이 밝은 갈색이 어울린다고 해요. 옷의 색상을 선택할 때는 원색 계열의 진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선택하는 게 좋답니다.

여름은 피부가 차갑고 밝은 파스텔 색상이 잘 어울려요.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은 여름 타입의 색상표를 참고해 코디하시면 좋겠죠?

가을은 자주색과 진한 갈색이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시중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코디 아이템들이 바로 가을의 계열에 속하는 색상이랍니다. 차분한 채도를 가진 색상으로 코디하면 한층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겨울은 눈동자나 머리카락 색상이 정말 진한 색을 가진 분들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검은색과 회색 등 명도가 진하거나 채도가 높아 눈에 확 띄는 색상으로 스타일링에 도전해보세요!



간호학과 19학번 변다원



작년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 더럭분교라는 곳에 방문해서 퍼스널컬러를 알아보기 위해 사진을 찍었어요. 평소에 제가 웜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 의외로 파란색이 잘 어울리더라구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파란색을 요즘은 즐겨 입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날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늘따라 화사해 보인다',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등의 칭찬을 자주 듣곤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어울리는 계절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을 코디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를 바라요.^^

간호학과 19학번 고가은



저는 진한 갈색의 눈동자와 다른 색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완전한 검은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컬러 진단 결과, 쿨톤의 겨울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해 스타일링을 해요. 자신의 퍼스널컬러가 겨울이라면 흰색으로 코디하는 것도 도전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도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패션의 트렌드만 쫓아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체형에 맞는 코디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코디하는 게 더 긍정적인 인상과 분위기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경찰행정학과 17학번 김경희



퍼스널컬러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친구들에게 물어보라'에요. 저는 웜톤인 건 알고 있었지만 봄이 더 어울리는지, 가을이 더 어울리는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었어요. 봄의 색상인 베이지색과 가을의 색상인 자주색으로 코디한 두 장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베이지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퍼스널컬러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퍼스널컬러를 알고 나니 코디하는 과정이 더 수월하고 무슨 옷을 입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면접과 같이 중요한 만남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세요~